

## 광주, 신천지 집단거주·비밀접촉... 집단감염 사태 막아라

코로나19 확진 30대, 격리지침 어기고 활동... 수사 의뢰  
신천지 교인들 모임 여전히 계속... 거주지 관리 강화해야

광주시가 신천지발 제2의 집단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침보다 대폭 강화한 방역기준을 적용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교인이 또 다른 교인과 접촉해 감염시킨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지역 내 신천지 교인 중 상당수가 특정 구역에 모여 살며 집단 모임 등 사실상 소규모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2·6·7면>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시설에 격리됐던 광주 3번 확진자 A(30세 남성)씨가 지난 11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교육생 등을 교육·관리하는 전도사급인 A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같은 달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다는, 정의하자면 '회복기 보균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퇴원과정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던 A씨가 다시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8일 연이어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 14, 15번째 환자와의 접촉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 14번 환자(22)와 15번 환자(여·25)는 A씨로부터 주월동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교육 등을 받아온 신천지 교인이다.

이들은 지난달 17-18일 A씨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 지난 2, 3일 격리 해제됐으나, 일주일여 만에 함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격리됐다. 방역당국은 전도사인 A씨가 자가격리 기간동안 이들과 접촉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A씨는 지난 5일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1차 음성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자가 격리됐다. 하지만 격리기간동안 외부인과 접촉하는 등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9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격리 조치됐다. 격리 후 무증상을 유지해온 A씨는 지난 11일 확진 판정 3주째 격리해제(12일)를 앞두고 추가 검사를 받았다가 다시 양성으로 판정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3월 들어 코로나19 '멈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는 신천지 교인 관련 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4만여명에 육박하는 광주지역 신천지 교인 중 상당수가 복구 신천지 오지동 교회와 인접한 모 빌라 주변 주택 및 임대 아파트, 광구역 인근 아파트, 남구 송하사우교회 인근 아파트, 광산구 모 주공아파트 등에 집단 거주하며 단체 교류 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신천지 교인 확진자에 한해 자가격리에 앞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격리해제 전 A씨의 감염사실을 발견해 낸 것이다.

방역당국은 "만약 A씨가 다른지역처럼 추가 검사 없이 그대로 격리해제돼 신천지 교인들과 다시 접촉했다면, 제2의 신천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임용기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광주상담소장은 "광주시가 신천지 관련 시설을 임시 폐쇄했다고 하지만, 신천지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결국 집단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신천지의 특성 중 하나가 신도간 집단거주인 만큼, 방역당국은 이들의 거주지도 집단시설로 보고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통상 바이러스는 3주 이내 소실되지만 A씨는 그 이상 유지한 특이한 사례"라면서 "완전히 소실된 바이러스가 되살아났다가

복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각국에 공격적 대응 촉구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은 가볍게 혹은 무시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잘못 사용하면 비이성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전쟁이 끝났다는 정당하지 못한 인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각국이 탐지, 진단, 치료, 격리, 추적 등을 한다면 소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지역 감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조차 코로나19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해외 유입 억제라는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하되, 국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 전략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PC방 소독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인 가운데 12일 오전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복구청 직원들이 마우스와 키보드 등을 소독제로 닦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산갑, 선관위 불법 고발에도 재심 기각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경선 재심 보류

#### 민주당 재심위원회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광산갑 경선과 관련, 이용민 예비후보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광주시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석형 예비후보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민주당이 재심 신청을 기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재심 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산갑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석형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투표까지 진행된 결과, 이용민 예비후보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선관위 고발을 당한 예비후보에 대해 자격 박탈을 결정할 바 있어 이번 재심위의 결정을 두고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재심을 앞두고 광주시 선관위에 의견을 구한 결과, "기존에 1차 경고한 바 있는데도 이석형 예비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재심위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검찰에 고발했다는 자체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광산갑도 재경선이 실시되고 있는데 광산갑마저 경선을 무효화 한다면 파장이 커지지 않는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경선 재심은 보류됐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이미 경선 결과에 대해 승복한 뒤에 재심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재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코스피 1800선 추락... 5년 만에 최저 8년 만에 '사이드카' 발동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선언 파장이 국내 증시에도 미쳐 12일 코스피가 1800선으로 추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3.94포인트(3.87%) 급감한 1834.33에 거래를 마감했다. 4년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장중 한때는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2.12포인트(5.39%) 떨어진 563.49로 장을 마쳤



다. 이는 지난해 8월6일 이후 최저치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코스피 49조5444억원, 코스닥 11조6303억원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3.5원 급등한 1206.5원에 마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달린 취업 門' 취준생들 3중고 ▶6면
-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 ▶18면
- KIA 나지완 올해는 달라질까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엔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